



총선 D-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류성영 동작을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 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성남지역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 '육아 특화형' 사회주택 공급한다

광주시·도시공사, 개발·공급...2027년 목표
 공동육아시설·커뮤니티 공간...입주자 시공 참여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육아중심 특화형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공사와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갖고 육아중심 특화형 사회주택 모델 개발·공급사업과 체류형 관광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미래차 국가산단 사업화 방안 수립 등을 논의했다.

육아중심 특화형 사회주택은 완공 후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존 임대주택과 다르게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계획·시공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육아중심 사회주택은 10~12세대의 개별 주거공간과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동시설을 갖춘다. 오는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 광주도시공사는 시가 추진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비롯해 미래차국가산단단지, 에너지벨리 일반산업단지, 어등산관광단지,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맡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을 다진다.

어등산에 신세계 북점소평몰(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을 포함한 휴양레저의 체류형 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꿀잼도시 광주' 조성에도 앞장선다.

주거복지사업으로 에너지벨리 '누구나 집' 건립사업 등 공공주택

을 지속 공급하며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자립준비청년·탈시설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도시공사는 시민들이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육아중심 특화형 사회주택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도시개발, 주택공급, 공공시설물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복진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김도기 기자

중증환자 증가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 '경계·심각' 등 비상체계 가동

전남도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 목포한국병원과 순천성가톨릭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를 대신할 지역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월 270명에 이르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중증환자 중 10% 이상이 몰릴 경우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비상체계를 가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비상 단계를 ▲1단계 관심(현재) ▲2단계 주의(10% 증가) ▲3단계 경계(25% 증가) ▲4단계 심각(50% 증가)으로 나눠 환자 증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경계 단계 돌입 시부터 대응체계를 적용해 단계적으로는 일부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해 고난도 중증 환자 진료에 대처하기 위해 1병상당 1000만 원의 병상 전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동·서부 전 권역 중환자실 부족 시 병상 확충 가능 의료기관을 발굴해 1병상당 1억 원의 중환자실 설치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경계 단계부터는 지방의료원의 숙련간호 인력을 권역응급센터에 한시적으로 파견하고, 응급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료 경력수당을 지급하는 등 의료진 근무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축소에도 도민이 진료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두 달여간 비상진료 태세로 근무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에 중환자실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집중식 환자감시장치 설치비용을 각 3억 원씩 지원했다.

/김호기 기자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 안 해...증원 규모 논의는 열어놔"

대통령실 "2000명 증원 결정, 현재는 흔들림 없어"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제안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다"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8일 오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이 곡해된 것을 정정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체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서 1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냐는 질문에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증원을 1년 유예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증원 규모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 대해서는 저희가 1년 이상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와 적극, 수차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2000명 증원) 흔들림이 없지만 만약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 의견이 있거나 한다면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와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그것을 갖고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알림
 본보 지역 주재기자 모집
 ▶모집분야 : 여수시
호남매일

제례·공연 마당
 남악제례
 현공다례
 문화예술 공연
 백두한라예술단 초청 공연
 읍·면 농악경연대회
 읍·면(초등대항) 율놀이 대회
 길거리(초등대항) 씨름대회

군민 한마당
 군민노래자랑
 시가행진
 읍·면 입장식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체육대회(줄다리기 등 8종목)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지리산 南岳祭

제80회 지리산남악제
제43회 군민의 날 행사

전시·체험 마당
 우리차 시음회
 전통떡 만들기
 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한국미술협회 구례지부 전시회
 움지락 품지락 작품전시
 한지공예 전시
 기념품 만들기 체험

공연·참여 마당
 남악서에백일장 및 작품전시회
 남악제 글짓기 대회
 내고장문화재 그리기대회
 전국 정가 시조경창대회

2024. 4. 18. 목 ~ 20. 토
 화암사 시설지구·공설운동장·구례군 일원

주최·주관 |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후원 | 구례군 Gurye County 문화재청
 문의 | 061) 780-2727